

##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제24교구본사 선운사가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교학의 종장으로 추앙한 석전스님’과 ‘당대의 선사로 우러러 받든 한암스님’을 주제로 그 공덕을 기리게 된 것은 종단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자 선대의 고마움에 답하는 후학의 참된 도리라 여겨집니다.

일제강점기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민족에게 질곡이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선대로부터 계승한 전통 수행가풍이 훼손되고 승가공동체가 근본의 뜻과 다르게 왜곡되어 계율의 청정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일은 한국불교사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전과 한암스님께서서는 교와 선의 최고 종장으로서, 계율의 의미를 복돋아 한국불교의 전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생을 하루같이 정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종단의 청정한 선종가풍도 유지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으로 위당 정인보, 미당 서정주,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과 같은 분들이 석전스님의 문하에 모여 심성의 기량까지 다텔 것만 보아도 스님은 종장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계학약전』을 저술하여 일제강점기 수행자의 계율정신을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교학은 물론 문장과 선수행을 넘어서 계율에까지 두루 이르셨으니, 당대는 물론 근세에 드문 선지식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위업과 대중들의 신망속에서 석전스님은 1929년과 1946년의 2차례 교정으로 추대되었고, 특히 해방 직후 교정이 되신 것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초를 확립하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암스님께서서는 경허스님의 법을 이은 대표적인 선승으로, 1925년 강남 봉은사의 조실을 박차면서, “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후 27년간 不出山하시며, <戒箴>을 곁에 두고 청정하고 올곧은 선수행에 여념 없으셨던 최고의 선지식입니다.

한암스님께서서 1929년·1935년·1941년·1948년의 무려 4차례나 敎正과 宗正으로 추대되신 것만 보아도 당시 스님의 선수행이 이룬 덕화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941년 초대 종정이 되신 것과 해방 후인 48년에 교정에 취임하신 것은,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석이 한암스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스님의 자취는 한 시대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곁에 항상 뜨거운 열기로 감돌고 있습니다. 석전과 한암스님의 시대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 한국불교의 좌표로 삼는 것은 우리 후대의 선택이 아닌 책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세미나를 주관하신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와 제4교구 및 제24교구의 본사 주지스님, 그리고 원로 대덕스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의 공덕이 많은 불자대중에게 희망을 전하고 미래의 길로 안내하기를 기원합니다.